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성과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建築工學科

高昌乎

2018年 2月

제주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성과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김 형 준

高 昌 乎

이 論文을 建築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12 月

高昌乎의 建築工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委

委

員

員

林正根
김형준
최희복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17 年 12 月

목 차

summary-----vii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II. 제주 전통민가 관련 문헌분석

1. 시대별 통사 연구관련 문헌-----4
1-1. 자연환경 특성-----5
1-2. 생활환경 특성-----6
1-3. 문화적 특성-----7
2. 공간구조 연구 관련 문헌-----7
3. 의장특성 연구 관련 문헌-----11
3-1. 가구요소-----11
3-2. 외부경관-----13
3-3. 재료-----14
4. 의미론 연구 관련 문헌-----16
4-1. 공간형식의 의미론적 분석-----16
4-2. 공간형식의 다가성-----17
4-3. 제주 전통민가의 제주성-----17

5. 관련문헌의 의미-----18

Ⅲ. 제주 전통민가 특성 분석

1.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 특성-----19

1-1. 배치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특성-----19

1-2. 건물의 배치 형태-----20

2.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 특성-----25

2-1. 평면 공간구성 배치의 특성-----25

2-2. 외부공간 요소-----26

2-3. 내부공간 요소-----31

3. 제주 전통민가의 재료 특성-----37

3-1. 새-----37

3-2. 목재-----37

3-3. 돌-----38

3-4. 흙-----39

Ⅳ. 제주 전통민가 특성의 현대적 요소 도출

1. 배치특성의 현대적 적용 요소 도출-----41

1-1. 마당의 구심적 배치-----41

1-2. 별동형 배치-----42

1-3. 가족제도에 따른 배치-----42

1-4. 공간 배치의 연결-----42

2. 공간특성의 현대적 적용 요소 도출-----	43
2-1. 외부적 공간요소-----	43
2-2. 내부적 공간요소-----	44
2-3. 공간특성의 고려요소-----	44
2-4. 기타요소-----	45
3. 재료특성의 현대적 적용 요소 도출-----	47
4. 현대적 적용 사례와 적용 가능성-----	49
4-1. 포도호텔-----	49
4-2. 지니어스 로사이-----	54
4-3. 씨에스호텔-----	55
4-4. 성읍1리 노인복지회관-----	56
4-5. 조천읍 신촌리 일반주택-----	57
4-6. 제주의 근.현대 주택 요소 사례 분석-----	58
4-7. 현대주택으로 적용 가능 요소-----	59
V. 결론-----	62
■ 참고문헌-----	65

■ 표 목차

표 1. 연구 흐름도-----	3
표 2. 시대별 통사 연구관련 문헌-----	4
표 3. 공간구조 연구관련 문헌-----	8
표 4. 제주 전통민가 주요 공간 명칭-----	9
표 5. 시대별 제주 전통민가의 평면 계획 특징-----	10
표 6. 의장특성 연구관련 문헌-----	11
표 7. 제주 전통민가 건축의 특징요소-----	15
표 8. 의미론 연구관련 문헌-----	16
표 9.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	54

■ 그림 목차

그림 1. 처마-----	11
그림 2. 기둥-----	12
그림 3. 기단-----	12
그림 4. 제주 전통민가 지붕-----	13
그림 5.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평면도-----	19
그림 6. 외거리집-----	20
그림 7. 마주 앉은 두거리집-----	22
그림 8. 모로 앉은 두거리집-----	22
그림 9. 마주 앉은 세거리집-----	23
그림 10. 모로 앉은 세거리집-----	23
그림 11. 네거리집-----	24
그림 12. 제주 전통민가 건축의 평면유형-----	25
그림 13. 제주 전통주거의 배치-----	26
그림 14. 제주 전통민가의 올래-----	27
그림 15. 제주 전통민가 마당-----	27
그림 16. 제주 전통민가의 마당 어긋돌-----	27
그림 17. 제주 전통민가의 안뒤-----	28
그림 18. 제주 전통민가의 놀굽-----	29
그림 19. 제주 전통민가의 우영-----	30
그림 20. 제주 전통민가의 통시-----	30
그림 21. 제주 전통민가의 상방(마루)-----	31
그림 22. 제주 전통민가의 구들 1-----	32
그림 23. 제주 전통민가의 구들 2-----	32
그림 24. 제주 전통민가의 정지-----	33
그림 25. 제주 전통민가의 쳇방-----	34
그림 26. 제주 전통민가의 고팡-----	35
그림 27. 제주 전통민가의 퇴(낭간)-----	35
그림 28. 제주 전통민가의 풍채-----	36
그림 29. 제주 전통민가의 굴목 1-----	36
그림 30. 제주 전통민가의 굴목 2-----	36

그림 31. 새-----	37
그림 32. 목재 서까래 구조-----	38
그림 33. 돌담 및 벽체-----	39
그림 34. 제주 초가 흙벽-----	40
그림 35. 어긋돌-----	45
그림 36. 정낭과 정주목-----	45
그림 37. 담-----	46
그림 38. 새를 활용한 마당의 모습-----	48
그림 39. 포도호텔의 평면배치도-----	50
그림 40.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를 적용한 배치개념-----	51
그림 41. 포도호텔 내부 유리중정(안마당)-----	51
그림 42. 포도호텔 안뒤-----	51
그림 43. 포도호텔 우영-----	52
그림 44. 씨에스 호텔 전경-----	55
그림 45. 성읍1리 노인복지회관 정면부-----	56
그림 46. 성읍1리 노인복지회관 연결부-----	56
그림 47. 조천읍 신촌리 일반주택 외관-----	57
그림 48. 조천읍 신촌리 일반주택 마당-----	57
그림 49. 근대 제주 주택의 모습-----	58
그림 50. 정지공간의 변화 모습-----	59

A Study on the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Jeju Traditional Houses and Modern Application

Ko, Chang-Ho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s by Kim, Hyoung-Jun

Summary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there have been the irregular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patterns in Jeju. So,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architectural elements in traditional houses located in Jeju, which need to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s, compile the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patterns and derive the element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modern architecture and the spatial and compositional shapes of houses in Jeju.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in Jeju and finds out any elements which can be reflected on the modern housing plan in Jeju to suggest the model for the future. Although up to now, there have been the theoretical studies on the traditions found in the traditional houses in Jeju and the references on the necessity of architecture through the reflection of elements, there have not been the descriptions on the detailed factors and the alternatives.

The reflection of the architectural locality is to show the compatibility between design and materials and the degree of expression based on the regional environment and culture and the maximum traditional factor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look for the creative approaches by which the matters above can be reinterpreted in various ways and expect the evolution of the design which can express the developmental locality. It would be impossible to accurately define what is the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for ordinary people in Jeju on the modern architecture. But, it would be expressed when a certain building is constructed in the future. It can be said that ou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would help them to be reflected on the modern house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본토와 떨어져 있어 옛날부터 제주지역만의 정치적, 사회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 특히 제주 전통민가의 문화는 토착화된 특유의 특징을 형성하여 왔다.¹⁾

이것은 토속적 문화인 민간신앙을 비롯하여, 자연환경과 생활문화의 기반으로 형성되어진 민속적 특징을 형성하여 오게 되었다.

주택의 형태가 단순히 지리적, 기후적 등의 요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복합적인 모든 범위의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로부터 파생되어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형태는 유용한 재료, 기술, 구조방법, 기후조건,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 종합적인 영향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제주 전통민가의 건축에 있어서도 모든 다른 건축물에 있어서처럼 제주도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오면서 변화되어 왔다. 생활환경이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아래 위치한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생활환경을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의 바탕위에 주거환경도 제주도의 초가라는 독특한 형태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여 왔다.²⁾

그리고 육지와는 구별되는 특유의 가족제도에 기인한 마당을 중심으로 한 안거리, 밖거리의 2분적 공간분할의 주거형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근대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제주 전통민가의 모습들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주택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주도 안에서도 각 지역별로, 토속신앙별로 전통성을 계승하여 제주 현대주택에 나타내려는 시도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전통성을 갖고 건축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제주 현대주택에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 주거형태의 변화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1)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1

2) 이창희,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론, 2012, p1

않은 상태이다. 또한, 관련 자료도 미비하거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대주택의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³⁾

본 연구는 근대화 과정에서 두서없이 건축형태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제주 전통민가의 건축형태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 중 계승발전이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고, 정리되지 않은 변화된 모습을 정리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현대건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와 공간구성적 모습 등을 도출해 내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⁴⁾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 전통민가의 주거공간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조합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현대주택에 활용가능성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그래서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적, 공간적 및 재료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건축적 특성을 제안 하고, 제주 현대주택 건축의 특성으로 보편화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각각의 특성에서 제주 현대주택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찾고 조합하여 조화로운 모델이 가능한지를 제안하는데 있다.

그리고 제주 전통민가의 건축 특성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여서 개념을 세우는 것보다는, 배치, 공간, 재료라는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전통민가에서 보여주는 특성 중 적용 가능한 특성들을 파악하여 사례분석을 같이하며 각각을 요소화 하며, 현대주택에 적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제주의 건축현황을 통해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할 이유가 있다.

즉, 제주 전통민가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모습을 살피고, 현대주택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주 현대주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파악된 요소들의 현대주택에 적용할 적절한 방안을 계획하여 적용 가능성을 찾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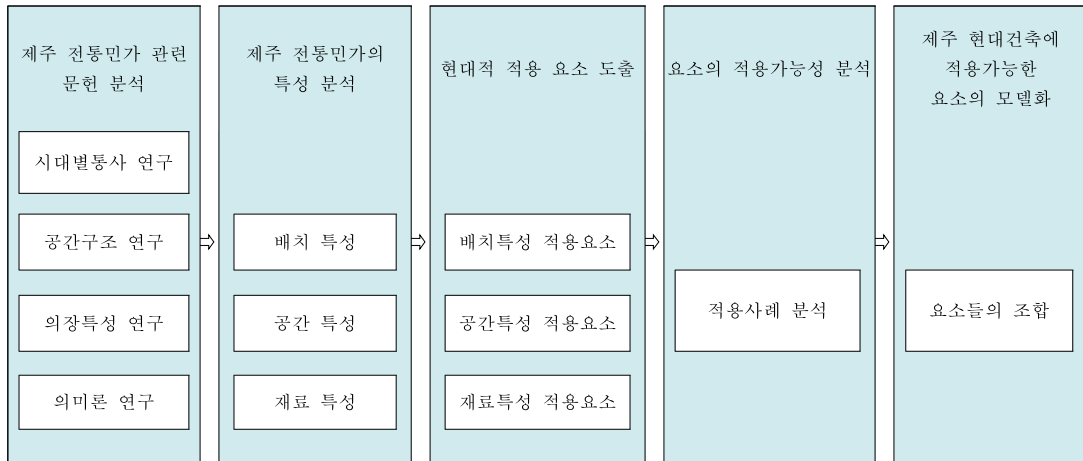
그래서 본 연구는 제주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성을 배치, 공간 및 재료의 범주로 한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특징 등을 찾아내어,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합이 가능하면 그것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방법 및 안을 찾아갈 것이다.

3) 이창희,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12, p2

4)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론, 2000, p1

그래서 제주 전통민가를 제주 현대주택에 적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할 것이다.

[표 1. 연구 흐름도]



II. 제주 전통민가 관련 문헌분석

1. 시대별 통사 연구관련 문헌

본 장에서는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주 현대주택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각 학술자료별 사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제주 전통민가의 전통에 대한 요소의 반영을 통한 건축의 필요성은 언급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소와 대안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 현실이다.

제주 전통민가의 시대별 연구에 관한 문헌들은 [표2]와 같으며, 그 개괄적인 내용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시대별 통사 연구관련 문헌]

저자	연구제목	년도	발행처
양택훈	제주도 민가의 주생활특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1989	대한건축학회
김행신 외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1991	제주대학교
양택훈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따른 민가의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1991	대한건축학회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환경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1991	대한건축학회
정영철 외	제주도 전통민가 형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	1991	대한건축학회
김영식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96	조선대학교
김미령 외	제주도 기후적 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98	대한건축학회
선은수 외	전통민가를 통해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생태적 특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2005	첨단기술연구소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0	연세대학교
양상호	근대시기 제주의 도시와 건축	2011	한국건축역사학회
김형준	제주전통주택에 나타나는 다가성에 관한 연구	2012	대한건축학회
이정준 외	기후적 특성에 대응한 제주 민가의 시대별 건축특징	2013	대한건축학회
이창희 외	제주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4	한국농촌건축학회
이정준 외	기후조건에 적합한 제주민가건축의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제주대학교

위 연구에서 공통적인 요소로써 아래와 같이 지리적, 지형적, 기후적 특성을 통해 제주 전통민가 형성의 형태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1. 자연환경 특성

(1) 지리적, 지형적 특성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90% 이상이 화산암인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대체적으로 동쪽과 서쪽은 경사면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고, 남쪽과 북쪽은 경사면이 가파르게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동심원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제주 곳곳에서는 400여개에 가까운 소형 화산체인 ‘오름’이 분포하고 있고, 한라산국립공원에 약 46개가 위치하며 고도 200m 이상인 곳에 약 260여개가 위치하고 있다.

고도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는 전체면적의 5% 미만이며, 해발 200m이하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하천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방사상의 하계모양으로, 하계 발달은 미약하며 건천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소규모의 습지가 발달한 일부 화산체의 분화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한라산 서쪽 1,100m 일대에는 고산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화산회토(volcanic ash soil)로 형성된 제주도의 토양은 토양적용밀도가 낮고 공극률(porosity)이 높아 물의 지하로 침투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바람에 의한 토양의 침식을 받기도 쉽다. 또한 현무암(basalt)이 염기성이지만 많은 높은 투수성과 강수량으로 인해 염기포화도가 매우 낮으며, 식물생육과 작물재배에 부적합하다. 제주도의 토양은 일반적 암갈색토, 농암갈색토, 갈색삼림토 및 흑색토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암갈색토를 제외한 세 유형의 토양이 화산회토로 취급된다.

이러한 지리적,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해안가에 취락이 밀집되어 나타난다.

(2) 기후적 특성

제주도는 사면의 바다로 둘러 쌓여 있는 특징상 연중 온난습윤한 해양성 기후이다. 또한 1,950m 높이의 한라산과 해류가 중요한 기후요소로 작용하여 제주도의 독특한 기후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는 아열대 습윤 기후에 해당 한다.

이러한 기후조건은 지형적 영향뿐만 아니라 해양성 열대기단과 대륙성 열대기단에서 기인한 지리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한라산 정상에서의 연평균 기온은 3.7℃ 정도로 해발고도마다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는 기후대의 수직분포형태가 잘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500mm로 북·서부지역(1,450mm)이 적고 남·동부 지역(약 1,850mm)이 많다. 또한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강수량은 증가한다.

이러한 환경은 지질학적 특성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전통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러한 문화와 생활양식이 특수한 지리적 영향 속에서 독특한 자연환경, 가족제도, 신앙, 의식구조 등에 의해 육지와는 다른 전통민가 형식이 형성되었다. 그 중에 난방의 필요성이 타지역보다 적어 집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방과 부엌이 분리되고 고팡이라는 특이한 공간이 생겨났다.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담을 쌓아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옥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남사면 일대는 방풍림의 식재도 나타나고 있다.

1-2. 생활환경 특성

제주도에서는 흔히 삼다라 하여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더불어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더하여 제주만의 생활문화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다 근처에 자리 잡고, 바람이 많기에 바람막이로 활용할 울타리를 쌓았고, 가장 많은 재료인 돌을 이용하여 쌓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건물은 낮게 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초가지붕은 새를 이용하여 지어졌고,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 새를 누름줄격자 형태로 엮어 매어 고정시켰다.

제주에는 여자가 많은 이유로 남자들이 바다 어로작업 중 많이 조난 및 사망한 데 기인한다고 하며, 그로 인해 여자들이 일터로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은 주거 공간 배치에도 영향을 주어서 제주 전통민가의 정지공간은 타 지역에 비해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가정에서의 여성들의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을을 형성하되 개인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외각에 돌담을 구성하고 울레로 연결이 되어 사생활의 보호를 받게 형성되었다.

1-3. 문화적 특성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언어, 민간신앙, 가족제도 등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내려오고 있다.

가족제도 중 특이한 것은, 보통은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같이 동거하는 형태의 모습인데 반해 제주도는 장남 역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건상 따로 독립이 어려운 경우 제주도는 ‘안거리’, ‘밖거리’로 한 울타리안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춰 살게 된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민간신앙이란 민중의 신앙현상 가운데 고대의 자연종교가 잔류, 계승된 것을 중심으로 한 비조직적인 종교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의 본능적 욕구인 풍부한 생활과 평안한 삶에 대한 욕구에 응답하려는 것이다. 예로부터 제주를 영주라 하고, 한라산을 영산이라 부른 것이나,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으로서 이들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점도 제주만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이다. 이처럼 제주는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와는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⁵⁾

민간신앙 역시 척박한 환경 및 기후 속에서 가족의 무사안녕과 생산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이 발달 되어 왔다.

또한, 제주 전통민가의 형성을 통해 생활환경이 민가의 변화 모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환경의 조건들이 제주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제주 전통민가의 변화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왔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위 연구들이 대부분 근접한 연구이기는 하나, 현대건축 적용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이론 추론에 가까워 현대주택 건축에 적용하기가 난해하다.

더불어 전통적 요소들이 얼마나 현대적 활용 가능한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 공간구조 연구관련 문헌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구조관련 문헌들은 [표3]과 같으며, 그 개괄적인 내용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5) 김형준, 문헌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p181

아래 연구들에서 보면 우선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의 명칭은 육지 주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육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

올레의 끝은 곡선으로 표현이 되어 개인적 영역의 확보, 계시적 공간구성의 결절 점으로써 공간의 위계성 생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 구조이다.⁷⁾

그리고 올레 목은 마당으로 진입하는길로써 완전 개방 형태도 아니고, 완전 폐쇄적이지도 않아 마당으로 들어설 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육지 가옥과의 차이로 구별 되고 있었다.

[표 3. 공간구조 연구관련 문헌]

저자	연구제목	년도	발행처
양택훈	제주민가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V)	1993	대한건축학회
김영직	제주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96	조선대학교
송병언	제주도 민가유형 해석을 통한 문화지역 설정	1999	한국건축역사학회
박은영	제주도 민가의 공간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1999	대한건축학회
김영철	관광지화에 따른 읍성취학 공간구조의 변화	2000	제주대학교
김창현	도시단독주택의 주거평면형태와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2002	명지대학교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2007	대한건축학회
홍광택	제주지역 현대건축의 배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2010	제주대학교
임민희	제주 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2011	숙대 석론
정은형	제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유희공간의 리노베이션 계획에 관한 연구	2013	홍익대학교
정은형	제주 전통건축 공간과 조형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2013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김지연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지역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2014	홍익대학교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와, 별동 배치의 형식도 한국 전통가옥과 구별 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설명한 가족제도, 기후 및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⁸⁾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의 구성은 상방을 중앙에 넓게 배치하여 개인보다 가족중심의 구성임을 알 수 있게 한 형태이다.⁹⁾

6)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p183

7) 임민희, 제주 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대, 석론, 2011, p18

8) 임민희, 제주 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대, 석론, 2011, p18

그리고 대문 없이 올레라는 진입공간을 둔다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았다.¹⁰⁾

[표 4. 제주 전통민가 주요 공간 명칭¹¹⁾]

명칭	세 부 내 용
올레	진입로에서 주택에 출입하는 긴 골목
정주목과 정낭	주택의 외부 주 출입구
안거리	안채 또는 본채
밖거리	바깥채로서 안거리와 마주 앓음
목거리	안채, 바깥채에 대하여 모로 배치된 건물
이문거리	좌우에 주거나 축사가 칸으로 된 문간
정지거리	순수하게 정지만 설치된 건물
상방	마루방
정지	부엌
통시	변소
고팡	곡류를 보관하는 창고
안뒤	안거리의 후원 또는 뒤뜰
큰구들	안방
작은구들	작은방
챗방	정지에 면하여 식사를 하는 공간
생깃문	상방 옆벽 대문 곁에 설치된 창
낭간(퇴)	뒷마루
우영	뒷밭
장항굽	장독대
물막	마굿간
굴목	큰구들의 불을 때는 공간
물팡	물허벅을 올려 놓는 시설
늘왓	보리, 조, 짚 등을 쌓아 두기 위한 터

9) 정은형, 제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유희공간의 리노베이션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2013, p 13

10) 박은영, 제주도 민가의 공간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9, p146

11) 김형준, 문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p183

[표 5. 시대별 제주 전통민가의 평면 계획 특징¹²⁾]

구분	평면특징
전통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경로 : 마을도로 → 올레(골목) → 이문간(대문) → 마당 → 건물 • 건물배치 : 마당을 중심으로 ‘口’자 배치 • 방위 : 한라산을 배면으로 배치 • 개구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방(거실)을 중심으로 개구부 맞배치 - 측면 개구부는 작게 구성 - 상방의 맞통풍 기류가 각 실로 배분 • 외부요소 : 올렛담, 울담(올타리담), 방풍림 • 규모 및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방중심 3칸형, 4칸형 위주 - 평균면적 130m² ~ 160m² - 부속건물 2~3채 구성 • 형태 : 장방형 위주 방형
1970년대 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경로 : 마을도로 → 측면 대문 → 건물 • 건물배치 : 주 건물과 나란히 ‘二’형 배치 • 방위 : 한라산을 배면으로 배치 • 개구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을 중심으로 개구부 맞배치 - 개구부 면적을 크게 함 - 각각의 방에서 유입되는 기류와 마루의 맞통풍 기류가 만나 유기적으로 흐름 • 외부요소 : 울담, 방풍림 • 규모 및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방중심 3칸형, 4칸형 위주 - 평균면적 : 100m² ~ 130m² - 부속건물 1채 ~ 2채 구성 • 형태 : 장방형 위주 방형
2000년대 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경로 : 마을도로 → 정면 대문 → 건물 • 건물배치 : 주 건물과 가깝게 배치 • 방위 : 주위환경을 고려한 남향 배치 • 개구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에 큰 개구부를 구성하여 통풍을 원활히 함 - 각 실별 창호를 평균 2개로 구성하여 개별적인 환기통풍이 될 수 있도록 구성 - 개구부를 되도록 많이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통풍이 원활하도록 함 • 외부요소 : 돌담, 담장, 조경용 식재 • 규모 및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개수를 기준으로 2개 ~ 3개 - 평균면적 : 100m² ~ 130m² - 단독건물을 위주로 부속건물 1채 구성 • 형태 : 정방형 위주 다양한 형태

12) 이정준, 기후조건에 적합한 제주 민가건축의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론, 2015, p23

3. 의장특성 연구관련 문헌

제주 전통민가의 의장적 특성을 연구한 문헌들은 [표6]과 같으며, 그 개괄적인 내용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의장특성 연구관련 문헌]

저자	연구제목	년도	발행처
김형남	1920~1960년대 제주시 도시주택의 구조 및 의장연구	1999	명지대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2001	이화여대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2006	연세대
장창민	제주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0	연세대

위 연구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파악해보면 가구, 외부경관, 재료의 요소적 특성을 통해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을 찾아낸 것을 알 수 있었다.

3-1. 가구요소

(1) 처마

처마는 새로 엮어 지붕을 맨 형태이며, 낮고 깊지 않게 되어 있어, 이 역시 바람의 피해를 염려해서이다.



그림 1. 제주 전통민가 처마¹³⁾

13) 이창희,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12

(2) 기둥

기둥 역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육지 가옥에 비해 낮으며, 제주도 내에서도 북서지역의 전통민가가 다른 지역보다 더 낮게 지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 2. 제주 전통민가 기둥¹⁴⁾

(3) 기단

육지 가옥에 비해 30~45cm 정도 낮은 평균 15.8cm 정도로 대부분 10cm이하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건물의 높이를 낮게 만들어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의미로 보인다.¹⁵⁾



그림 3. 제주 전통민가 기단¹⁶⁾

14)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15)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론, 2000, p42

16) 이창희,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p54

(4) 벽체

제주 전통민가의 벽체는 외벽은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회색 다공질 현무암으로 막쌓기한 형태이다. 그리고 벽의 모서리, 정지 앞, 굴목 출입부분 등은 각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 올려 바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 전통민가 역시 도서지역에서 발달된 장막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조구조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처마 밑 30~45cm까지 쌓아 올렸다.¹⁷⁾

3-2. 외부경관

(1) 방풍시설(돌담과 방풍림)

제주 전통민가의 돌담은 육지 가옥에 비해 높게 형성된 약 1.7m 높이로 쌓아서 공간을 나누고, 방풍의 역할을 하고, 주요 경관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방풍림을 돌담에 인접해서 식재하여 바람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2) 지붕



그림 4. 제주 전통민가 지붕¹⁸⁾

지붕의 형태는 낮고 완만한 경사 형태이며,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강한 풍우를

17)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론, 2000, p43

18) 이정준, 기후조건에 적합한 제주 민가건축의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국내석사, 2015, p12

견디기 위해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달리 용마름이 없는 부채 이영법이 쓰여 마루가 없는 유체역학적으로 유리한 유선형 지붕 형태이다.

육지 가옥에 비해 낮은 물매가 돔 모양의 내풍적 형태를 띠며, 새끼를 꼬아서 격자형으로 촘촘히 쌓여져 지붕을 누름으로써 바람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역시 제주 전통민가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¹⁹⁾

(3) 개구부

개구부는 문(門)과 창(窓), 호(戶)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구분은 명확하지는 않다.²⁰⁾

제주 전통민가의 창문은 개방성을 지향함과 동시에 풍파를 의식하여 크기를 작게 한 양쪽문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다른 도서지역에서는 외쪽문으로 되어 있고, 옆에 봉창을 내어 보조창으로 이용한다.²¹⁾

또한 개구부의 특징은 개방성을 지향하면서도 옆벽면과 후벽면은 최소한의 개구부만 두어 외부로 노출된 문은 두꺼운 판장문 또는 이중문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폐쇄적인 모습의 형태이다. 하지만 제주 전통민가 중 일부는 재창문이라는 판문이 설치되어 안방에 달린 봉창문처럼 풍우설시에도 채광과 배연 및 통풍이 되도록 하고 있다.

3-3. 재료

(1) 벽재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외벽은 이중벽구조로 암회색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쌓아 올린 것이 특징이며, 내벽은 토벽상태이거나 토벽위에 도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광, 내실, 상방 등은 전체의 하반을 목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주이다.

(2) 지붕재료







19)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론, 2000, p44

20) 송성대, 한국 도서지방 초옥 민가의 지역성, 경희대, 박론, 1990, p73

21)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론, 2000, p45

제주 전통민가는 새를 사용하는게 특징이며, 이는 경량의 식물성 재료로 열경에 각피가 잘 발달하고 유성분이 많은 저흡수성이기 때문에 건조가 빨라 유리한 재료로 취급한다.

[표 7. 제주 전통민가 건축의 특징요소²²⁾]

요소	역할	지역
 굴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들과 외벽사이에 공간으로 바람에 의해 구들의 온기가 빨리 떨어지는 것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돌담, 이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담 : 낮게는 120CM부터 높게는 처마 높이까지 담을 쌓아 바람을 차단 • 이문간 : 부속건물 또는 울담의 대문으로 설치되어 강풍을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해안가
 재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방 출입문 옆에 별도로 설치하여 통풍을 원활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 성산
 낭간, 풍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간 : 현관의 기능으로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면서 비나 바람으로부터 가옥 전면을 보호 • 풍채 : 처마 끝에 설치한 채양으로 풍우시에 내려서 건물의 손상을 방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석재 방풍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벽인 흙벽 바깥으로 구성된 현무암 외벽을 말하며 강한 바람을 막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이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들 창문으로 강풍을 차단하여 실내 온기를 유지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해안가

22) 이정준, 기후조건에 적합한 제주 민가건축의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국내석사, 2015, p19

4. 의미론 연구관련 문헌

제주 전통민가의 의미론 연구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 개괄적인 내용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의미론 연구관련 문헌]

저자	연구제목	년도	발행처
이희봉	제주도 민가 유형 해석을 통한 문화지역 설정	1999	한국건축역사학회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2007	대한건축학회
김형준	제주전통주택에 나타나는 다가성에 관한연구	2012	대한건축학회
김형준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	2011	대한건축학회

제주 전통민가 특성의 형성과 변화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생활문화, 민간신앙 등의 영향을 받음으로서 생겨난 것이며, 육지와는 다른 주택형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³⁾

그리고 제주 전통민가의 연구는 형식적 모습에 치우쳐 오면서 그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는 분석과 해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4-1. 공간형식의 의미론적 분석

상방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활용 되었다. 대부분 봉덕 또는 부섭이라 불리는 돌화로가 있어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 되었으며, 제사, 관혼상제, 손님의 접대, 식사, 가사노동 등 주택에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간인 것이었다. 또한 상방은 가신 중 문전신이 머무는 곳으로서 위계상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공간이었다.²⁴⁾

정지는 부엌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육지에서는 난방과 취사를 겸하고 있으나 제주 전통민가에서는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다. 취사는 정지에서 화덕을 사용하였으며, 굴묵에 불을 지피 구들에 난방을 하였다. 화덕과 굴묵이 사용하는 연료도 상이하어, 화덕에는 새, 보리짚, 조짚 등을 사용 하였고, 굴묵에는 말뚱과 소똥을 같이 섞어 사용하

23)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 건축사회, 1992, p291~308

24)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3, pp.182

였다.

이 곳 정지는 조왕신이 계시다고 믿었으며, 의례를 치를 때에는 상방의 문전제와 함께 이 곳에서 조왕제를 지내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였다.²⁵⁾

고팡은 곡식류를 저장하는 창고 또는 수장공간으로, 흙바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주택의 내부에 위치에 있다. 이 곳에서는 안칠성을 신으로 모셔 가정의 부와 풍요를 기원하였다.

외부공간에서는 특이한 공간구성 요소인 안뒤가 있다.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형태로 존재하여, 상방의 뒷문이나 정지의 뒷문을 이용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이 곳은 가정의 부와 곡물을 수호해주는 밧칠성을 모신 칠성놀이 있고, 독자적인 여성의 공간이었다.²⁶⁾

4-2. 공간형식의 다가성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구성 요소들은 하나의 공간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독자성은 쓰이는 용도와 요구에 의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 전통민가에서 나타나는 공간형식을 다가성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²⁷⁾

그 일례로 마당의 다가성을 보면 육지에서는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등으로 구분되어 지고, 각각의 독자성을 갖지만 한 곳이다. 그러나 제주 전통민가의 마당은 주거배치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생산, 작업, 혼례, 상례, 제례, 모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다가성을 가진다.²⁸⁾

4-3. 제주 전통민가의 제주성

제주 전통민가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특한 생활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정체성을 건축의 제주성이라고 하고, 일차원적인 분석이 아니라 존재론적 층위에서 접근하여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성격, 특성, 정체성 등의 분석에만 집중하지 않고 판단을 통한 제주의 건축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구조를 갖는 것이며, 좋다, 나쁘다가 아닌 다름, 다르다의 다양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²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식에 의미론적 접근과 해석을 더하고자 한다.

25)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3, pp.182

26)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3, pp.183

27)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2.3, p.22

28)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2.3, p.23

29) 김형준,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 p.264

5. 관련 문헌의 의미

앞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에서, 공통적인 것은 제주 전통민가에 대한 해석 및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다음장에서 다루는 특성 분석도 이견 없이 실려 있었다. 다만 여기서 의미를 끌어내는데 저자들의 생각과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즉,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은 제주를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가 생각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도 적절한 몇가지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어떻게 제주 전통민가를 해석하였는지 알아 보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한 현대적 적용 요소들을 도출하고, 사용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다룰 것이다.

Ⅲ. 제주 전통민가 특성 분석

1.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 특성

1-1. 배치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특성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 특성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별동배치형식과 구심적 대칭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후, 재료 영향에 따른 물리적 요인과 종교, 풍수지리, 섬생활 특성의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다.

더불어 제주만의 가족 형태로 인한 안거리, 밖거리의 분리 거주와 바람 등의 기후적 특성이 배치 형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당 공간’이 농어물의 건조장과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외에 여름철의 서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분동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도 한다.³⁰⁾

또한 배치 특성에서 형성된 외부모습은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마을안길(한길)에서 올레, 올레목, 안마당, 상방, 안뒤로 이어지면서 완급조절, 트임과 폐쇄의 조화가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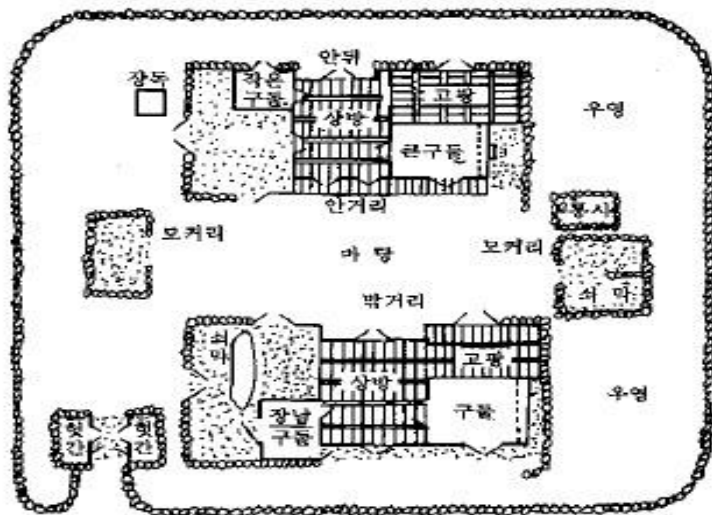


그림 5.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평면도(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에서 전재)

30)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1, p.11

내부공간구성은 상방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구들, 다른 한편에는 정지가 있는데, 구들에는 난방을 위한 공간인 굴묵(아궁이)이 붙어 있고, 뒤쪽으로 고팡이 있다.

평면유형은 겹집형식으로 배치되고, 일자형 평면으로 곡가(曲家)가 없는 형태이다.

앞쪽에는 퇴에서 마당과 연결되어 완충공간이 형성되고, 뒤쪽에는 안뒤로 트인 형태가 보인다. 상방은 구들과 고팡이 있고, 다른쪽으로 정지가 있다.

마당의 전면되는 건조하는 곡물의 일시저장소로 쓰이며, 구들의 악천후에 대비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중간공간으로서 쓰여진다.

1-2. 건물의 배치 형태

(1) 제주 전통민가의 평면배치의 특징

- 1) 겹집의 분할방식으로 형성된다.
- 2) 아궁이가 취사와 난방으로 분리되어 합리적인 평면 배치가 가능하다
- 3) 침실과 수장공간이 건축계획상 구분되어 형성된다.
- 4) 정지, 책방, 마루로 구성되어지거나 정지, 마루로 연결되어 침식분리가 되도록 공간별 기능이 잘 분리되어 있다.

(2) 외거리집(일자형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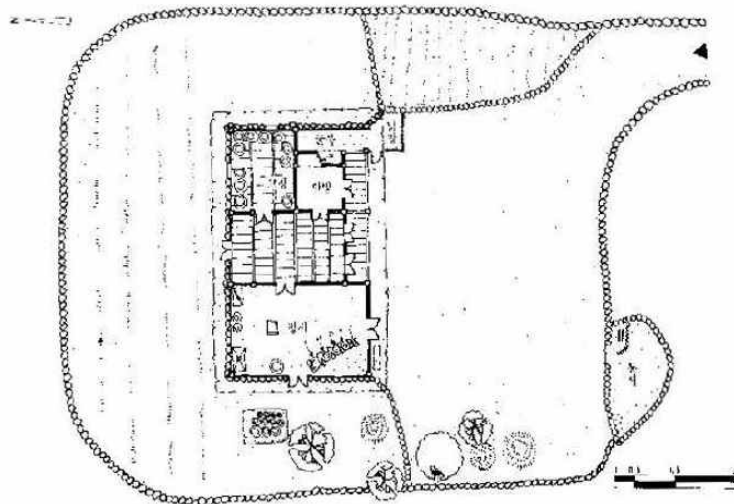


그림 6. 외거리집³¹⁾

돌담 울타리 안에 건물 하나(안거리)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2칸 막살이집, 세

31)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22

칸집, 네칸집이 있으며 막살이집 앞에는 반드시 마당이 있다. 이는 농작업의 공간으로서 통풍, 채광을 위한 인동간격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올레는 거의 없이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거나, 있더라도 짧고, 안뒤와 우영 등의 예비공간은 이런 류의 집에서는 대부분 고려되지 않는다.

1) 2칸형

상방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제주 전통민가의 가장 원시적 기본 형태이다.

구들 및 정지가 있는 2칸 초가집을 말하며, 머리와 아랫간이 붙어 있는 형태로 한쪽은 정지, 다른 한쪽은 퇴, 구들, 고팡의 순서로 배치되고, 구들 한쪽에 굴목이 설치된다.

2) 3칸형

구들, 상방, 정지의 3칸 초가집을 말하며, 정지내형과 가은 간살로 하되 작은구들을 상방에 붙이지 않고 거꾸로 상방 반대쪽에 붙여 상방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마루를 깔아 이용한다.

3) 4칸형

가운데 상방을 두고 왼쪽(또는 오른쪽)으로 앞뒤에 큰 구들과 고팡이 있으며, 오른쪽(또는 왼쪽)으로 앞뒤에 첻방과 작은 구들 그리고 그 옆에 정지가 배치되어 있다. 상방과 구들 앞에는 낭간이 있으며 큰 구들 옆에 굴목이 위치한다.

(3) 두거리집

건물 두채가 정면 배치된 마주앉은 형과 밖거리가 옆으로 ㄱ자형으로 배치된 모로 앉은 형이 있다. 출입로인 올레에서 보아 안쪽과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으면 안채를 안거리, 바깥채를 밖거리라고 부른다. 건물이 동서로 배치되면 동넉거리, 서넉거리라 부르고, 남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넉거리, 알넉거리라 부르기도 한다.

두거리집에는 부엌이나 고팡이 하나씩만 있어 한가족 단위가 되기도 하나, 이 보다는 안거리와 밖거리에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어 두 가족이 침식과 경제 단위를 달리하기도 한다.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저마다 상방(마루), 정지(부엌), 구들(방), 고평(창고)이 있지만, 조상의 제사를 준비하는 일(정지-조왕신), 제사를 지내는 일(상방-문전신), 제수용 제수를 보관하는 일(고평-안칠성) 등은 안거리에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안거리에 속한 안뒤에만 밧칠성(칠성놀이)이 있다.

제주도는 아들이 결혼하면 안거리에는 부모 세대가, 밖거리에서는 아들 세대가 산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 세대가 밖거리로, 자식 세대가 안거리로 들어간다. 친족의 일, 공동재산권, 부조, 당에 가는 일들 역시 안거리에 사는 사람들만 하는 등, 안거리는 밖거리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밖거리에 살던 자식이 안거리로 옮겨 산다는 것은 그 집안을 주도하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두거리집이라 하면 한 울타리 안에 3칸집 또는 4칸집의 안거리, 밖거리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이나 ㄷ자형으로 배치한 집이다.

건물 두 채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형태를 ‘마주 앉은 형’과 밖거리가 옆으로 배치된 ‘모로 앉은 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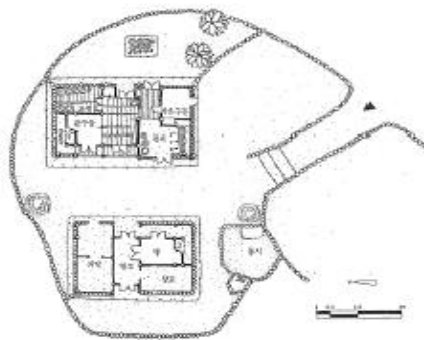


그림 7. 마주 앉은 두거리집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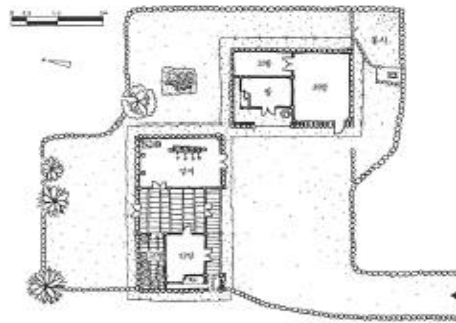


그림 8. 모로 앉은 두거리집

1) 마주 앉은 두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마주 보도록 일렬로 배치된 집이다.

2) 모로 앉은 두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으로 배치된 집이다. 이 때, 밖거리는 일조계수를 고려하여 안거리의 모에 앉히게 되며 대문은 집의

32)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론, 2000, p13

측면으로 되어 출입할 때는 ㄱ자로 꺾이어 마당으로 들어서게 된다.

(4) 세거리집

한 울타리 안에 세 채의 건물이 배치된 집으로서 안·밖거리형 배치에 모거리가 추가된 배치로 모거리는 소규모의 경영시설이 대부분이고 안거리에 따른 정지거리가 되기도 한다.

세거리집은 북부지역에 많은데 대가족을 이루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에 기인하는 주택 형식인 듯하다. 이 형태는 제주도에 가장 많고 보편화된 주택의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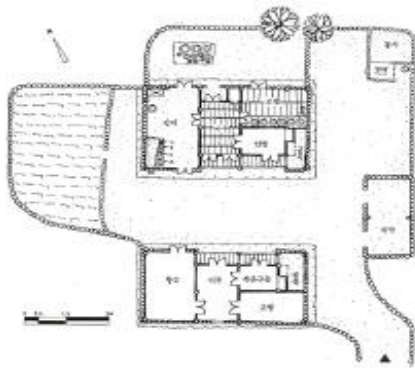


그림 9. 마주 앞은 세거리집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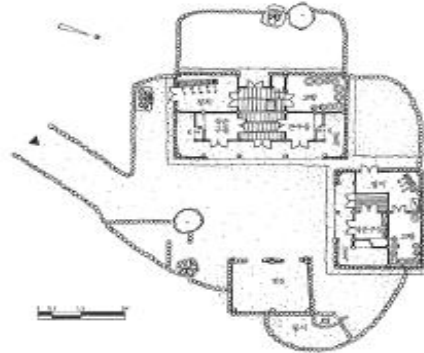


그림 10. 모로 앞은 세거리집

1) 마주 앞은 세거리집

마주 앞은 두거리집과 안·밖거리의 배치는 같으나 밖거리에 설치되었던 쇠막·헛간 등을 독립시켜 판채로 만든 형태이다.

2) 모로 앞은 세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를 ㄱ자로 배치하고 쇠막, 헛간 등을 안거리 맞은편에 설치한 집을 말한다. 즉, 밖거리의 부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설치되었던 쇠막 또는 헛간 등을 독립시켜 판채로 만든다. 이런 형은 모로 앞은 두거리집과 마찬가지로 남부지역의 농촌에 많다.

33)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론, 2000, p13

(5) 네거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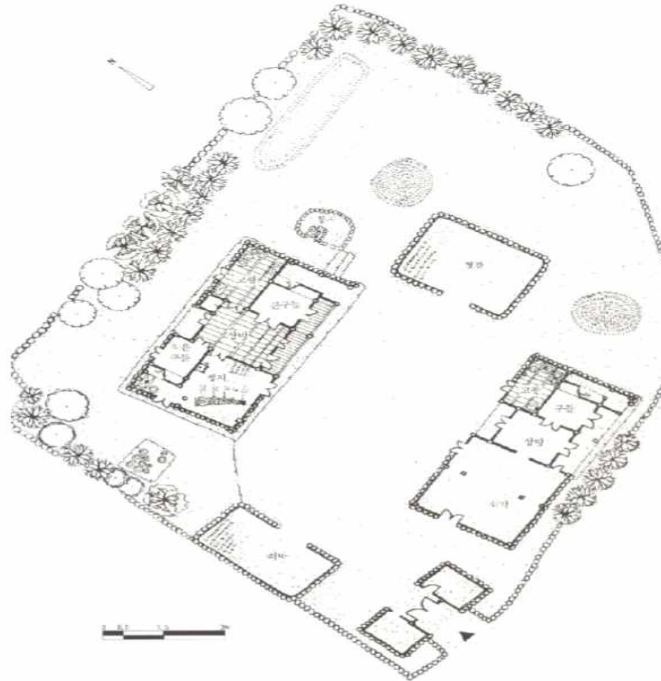


그림 11. 네거리집³⁴⁾

안·밖거리를 마당을 중심으로 마주보게 일렬로 배치하고, 그것의 양쪽에 口자를 이루도록 외양간·헛간, 수레간 등을 설치하고 이것들의 밖에는 이문간을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이것은 제주 전통민가에서 가장 발달되고 중농이상의 귀족형의 주택으로 어떤 정형을 갖추지 않고 자유스런 배치를 하고 있다.

제주에서 볼 수 있는 口자형 집은, 집의 촛수[棟數]에 따라 구분된 명칭인데, 옛날 현아(縣衙)가 있었던 남제주군의 대정읍(大靜邑)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대개 3칸 또는 4칸으로 된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를 마주보게 하거나 모로 배치하여, 양쪽에 테들막(헛간채) 또는 쇠막을 두어 집 전체가 口자 모양을 이룬다. 네거리집이라는 이름은 집의 촛수[棟數]에 따라 '외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생긴 것이다.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형태는 二자형 배치가 기본형으로서 그 변형인 ㄱ자형 배치, ㄷ자형 배치, 口자형 배치 등이 생겼고, 一자형 배치는 二자형 배치의 미발달 또는 쇠퇴형이라 생각 된다.

제주의 주택에는 대개 대문을 달지 않으나, 네거리집의 경우는 '올레' 밖(담장

34)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24

으로 돌출된 부분)에 먼문(바깥 대문)을 달고, 바깥채와 쇠막 등을 잇는 이문간(중간문)을 다는 등 반드시 대문을 하나나 둘 설치하며, 안뒤(안채 뒷마당)에는 샘을 파고, 박석(薄石)을 깔아 비가 와도 질척거리지 않게 하였다.

2.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 특성

2-1. 평면 공간구성 배치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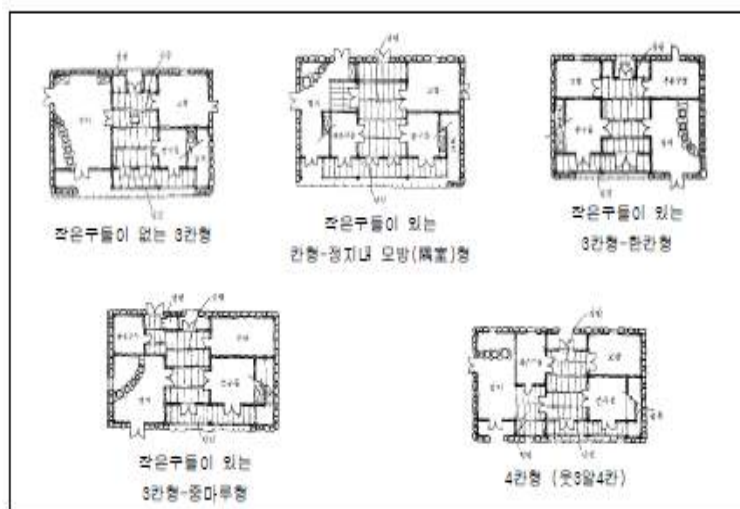


그림 12. 제주 전통민가 건축의 평면유형³⁵⁾

제주 전통민가의 평면구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겹집형식의 일자형으로 꺾은집이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3칸집에서 보면 상방을 중심으로 한쪽에 큰 구들의 뒷간으로 고팡이 놓이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구들 또는 정지 등이 놓인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고팡, 작은 구들 또는 방이 거의 고정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앞을 통해서는 완충공간인 퇴에서 마당으로 연결되고 뒤쪽으로는 뒷문을 통해서 안뒤로 트인다. 전후좌우에 뒷간이 있어 측면의 퇴는 난방을 위한 굴목이 되고, 고팡과 정지는 뒷간이 포함 되어 있어서 방에 비해 넓다. 이것으로 퇴는 낮은 기단과 함께 동선연결을 원활히 해주며 방에 악천후의 기후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중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취사와 난방의 분리에서 얻은 합리적인 평면구성이 제주 민가의 두드러진 장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35)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18

만하다

2-2. 외부공간 요소

주거 내 외부공간의 배치는 돌담 등에 의해 구성되어지고 있는데,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등 각 동의 배치에 따라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칭적 배치와 별동 배치 형식이 철저히 고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³⁶⁾

즉, 이 외부공간의 배치는 기능적, 공간적 질서를 지키며 체계를 만들고 있다.

도입부인 올레는 물팡돌이나 어귀돌에 의해서 제1차 암시를 받는 부분과 정낭에 의해 2차 암시를 받는 부분, 그리고 다리팡돌에 의해 유도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주거내 공간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별동배치에 따라 각 동사이의 외부공간이 우영, 놀꿍, 우잣 등으로 자연스럽게 정연하게 마무리 된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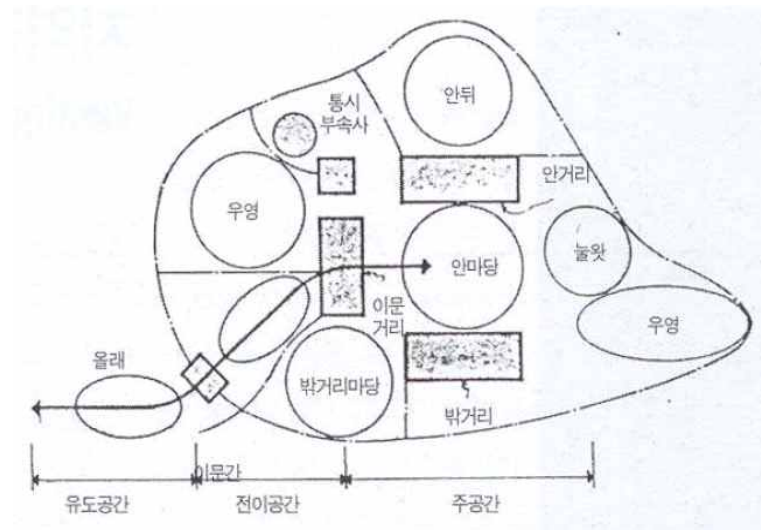


그림 13. 제주 전통주거의 배치³⁸⁾

(1) 올레

제주 전통민가는 큰길에서 집까지 이르는 골목을 의미하는 즉, 출입을 위해서는

36)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18

37)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19

38)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30

진입로라고 할 수 있는 올레를 거쳐야 한다. 올레 유형은 I형, L형, S형 등 다양하다.³⁹⁾

올레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첫머리인 어귀는 양쪽으로 놓고, 양쪽 바닥에는 평평한 잇돌 또는 다리팡돌을 놓아 징검다리로 쓰였다.

올레가 마당으로 이어지기 직전까지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다가 막바지에 이르러 심하게 구부러진 곳이 올레목이다. 올레목을 지나면 시야가 넓어지고 집안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다. 정낭은 대개 이곳에 설치했다.



그림 14. 제주 전통민가의 올레, 한국향토전자문화대전

(2) 마당



그림 15. 제주 전통민가 마당⁴⁰⁾

39)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설계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3, p21

40)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

제주 전통민가의 마당은 추수기의 작업공간이자 통풍, 채광을 위한 인동간격 공간으로 쓰인다. 그리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올레의 다리광돌에 이어 마당의 둘레에 광돌을 설치한다.

집안의 각종 행사가 행해지는 공간으로 집을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안거리와 밖거리로 나뉘서 생활하는 부모와 자식의 가족이 서로 심리적 부담감을 다소 덜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3) 안 뒤



그림 17. 제주 전통민가의 안뒤⁴¹⁾

안거리의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을 말하며, 뒷벽 한쪽 끝에서 다른쪽으로 원을 쌓아서 외부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든 공간이다. 출입은 안거리의 상방(마루)의 뒷문이나 정지(부엌)를 이용하여 들어 갈 수 있는 여성의 공간이다.

폐쇄적 공간으로 주위의 담보다 높게 쌓았고, 동백, 조록나무, 대나무 등을 심어 그 역할을 하게 하였다.⁴²⁾

안뒤에는 춤, 칠성놀이, 장항굽 등이 있다. 춤은 빗물을 받아 놓는 항아리를 말하며, 칠성놀이는 그 집안에 곡물과 부를 이루어 준다는 밧칠성을 모시는 놀이를 말한다. 장항굽은 장독대를 표현하는 말이다.

론, 2010, p.20

41)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11

42) 이창희,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론, 2012, p36

(4) 놀굽

난가리를 쌓기 위해 마당 한쪽에 만들어 놓은 터를 의미한다. 탈곡하기 전 농작물을 단으로 쌓아 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을 난가리로 썬 뒤 놓은 것을 놀이라 하며, 그 공간을 놀왓이라고도 한다.

침수를 피하고자 지면으로부터 40~50cm 정도 높게 돌로 단을 평평하게 쌓아 놓았다.

놀은 탈곡하고 난 뒤의 짚을 난가리로 썬 뒤 쌓아 놓은 단을 말하며, 연료나 소의 먹이로 쓰이거나 동시에 넣어 퇴비를 만드는데 쓰였다.



그림 18. 제주 전통민가의 놀굽,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5) 우영

울담 안의 안거리 혹은 밖거리의 측면 또는 전후면에 위치하며, 낮은 담으로 둘러쳐 만들어진 별도의 작은 공간으로 채소를 기르는 텃밭을 의미한다.

우영은 우잣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밭으로 쓰이지 않는 허드레 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의 수장 공간이 되는 곳을 말한다. 규모가 크고 경작지로 이용될 경우는 우영밭으로 부른다. 이곳에서 매일 소요되는 부식을 공급해주는 곳으로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공간이기도 하다.⁴³⁾

43) 이창희,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12, p37



그림 19. 제주 전통민가의 우영, 성읍 조일훈 가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6) 통시



그림 20. 제주 전통민가의 통시, 성읍 조일훈 가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통시는 대개 마당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도록 건물의 한 쪽 옆을 돌아가서 있었다. 일반적으로 안거리와 정지의 반대쪽 큰구들의 횡벽 옆 또는 밖거리 옆 울담에 덧붙여 만들었던 변소와 돼지막(똥통)이 함께 조성된 뒷간을 말한다.

통시는 바닥이 마당보다 낮게 파여 있어서 오물이 밖으로 흘러 나오지 않게 되어 있고, 보리짚 등을 깔아 놓아다가 퇴비로 활용되었다.

(7) 외부공간의 특성

제주 전통민가의 외부 공간구성은 올레, 올레목, 마당, 그리고 안뒤를 포함한 모든 주거공간의 마지막 공간으로 나누어 볼 때, 크게 도입부, 전곡부, 발전부, 종결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올레는 물팡돌이나 어귀돌에서 1차 확인하고, 정낭에 의해 2차 확인, 다리팡돌에 의해 3차 확인을 할 수 있다. 44)

그리고 올레목을 통해서는 공간의 전환을 만들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별동 배치에 따라 각 동 사이의 외부공간들은 우영, 우жат, 놀굽 등으로 자연스럽게 그 기능들이 마련된다.

안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밖거리, 모거리, 놀굽은 사국 형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각 동은 규모나 재료의 위계성은 있으나 높이에 따른 위계는 미약하고 성별에 따른 영역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다.

2-3. 내부공간 요소

(1) 상방(마루)



그림 21. 제주 전통민가의 상방(마루),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44)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설계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3, P21

제주 전통민가의 안거리나 밖거리 등의 살림채의 중심에 위치하는 공간이다. 또한 집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마루인 상방은 주거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자 제사, 관혼상제, 가족 집회, 손님접대, 식사, 가사일 등이 이루어지는 공적이 공간이기도 하다. 2칸에는 없으나, 3칸과 4칸형에는 중심부에 상방이 위치한다.

다른공간에 비해 개방적인 공간이며, 상방에서는 외부 공간인 마당과 안뒤, 내부공간인 큰 구들, 작은 구들, 칠판과 정지 등을 모두 드나들 수 있다. 또한 통풍의 기능도 더불어 갖고 있다.

(2) 구들



그림 22. 제주전통민가의 구들 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그림 23. 제주전통민가의 구들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에서는 흔히 방이라고 부르는 생활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온돌 설비가 없는 상방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즉, 수면, 휴식, 학습 등 사적 공간으로 온돌 설비가 된 곳을 구들이라 부른다. 바닥은 유지 바름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2.0~2.2m이며, 높이는 1.9~2.0m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고팡에 접한 구들을 큰 구들이라 하고, 이외의 구들을 작은 구들이라 한다. 큰 구들 굴목쪽 벽의 상반부에 벽장을 설치하여 이불과 껌을 놓았다.

이 곳은 난방을 위한 공간이고, 측벽 또는 낭간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간은 폐쇄되어 있다.

보통 큰 구들은 부부, 유아, 내객의 침실로 쓰이며, 조상신의 제사 등이 이루어지는 중요 공간이다. 상방에는 온돌설비가 없으나 구들방의 일종인 난방 공간으로 굴목이 있다.

구들에서 상방으로 통하는 문은 출입용이고, 마당 쪽으로 한지를 바른 채광 및 조망용으로 만들어진 문은 창문이라 한다. 이 창문에는 비바람에 대비하여 세 살문이나 반문으로 된 덧문이 붙여졌다.

(3) 정지

제주 전통민가의 부엌을 일컫는 말로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적 공간이다. 아궁이를 설치하는 육지 민가와 달리 취사와 난방의 기능을 구분하는 특징이 있다. 지역에 따라 정지거리를 별동으로 건축하기도 한다.

흙바닥에 벽은 돌을 쌓아 흙만 발랐으며, 정지의 앞문은 마당 쪽으로 나있고, 안뒤 쪽으로 뒷문이 있으며 쳇방이나 상방으로 직접 연결된다.

정지는 취사를 위한 부엌 공간과 작업을 위한 봉당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공간의 구분을 바닥 높이에 차를 두어 표시하기도 한다. 봉당 공간의 바닥을 부엌 공간보다 약 15~20cm 정도 높여 구분한다.

부엌 공간은 대부분 불을 사용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여 솔덕과 불치통(솔덕과 외벽 사이의 공간으로 재를 모아 두는 곳)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지들거(뿔감) 정도를 놔두곤 깨끗하게 비워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지 뒤편에 식기를 보관하는 살레(찬장)를 놓는다. 뒷벽 구석에는 물을 길어다 담은 항아리인 물항과 통나무를 파서 만든 설거지통인 곳은 물통을 놓았다.



그림 24. 제주 전통민가의 정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4) 쳇방

제주 전통민가의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정지와 상방 사이에 놓여 있는 마루가 설치된 식사공간으로, 취식분리가 이루어지는 특이한 제

주 전통 주거 공간 중의 하나이다.

챗방의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주부의 주요 가사 공간인 정지와 안식 공간인 상방(마루)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근대적 공간분화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요소의 하나가 된다. 즉 취사행위와 식사행위, 취침행위가 완전히 구별되어 공간적 기능 분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세 칸 집이 제주 초가의 기본형일 때 챗방이 있는 네 칸 집은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그림 25. 제주 전통민가의 챗방, 제주민속촌

(5) 고팡

제주 전통민가에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를 일컫는다. 고팡은 주로 곡물 등 식품을 보관하는 공간인데 반드시 큰구들(안방) 뒤에 배치되어 있다.

상방(마루)을 사이에 두고 큰구들에 접하여 위치한다. 고팡문은 상방에서 통할 수 있는 두 짝의 판문이다. 바닥은 지면보다 높은 흙바닥이고 벽도 흙벽이며 천정은 노출반자이다. 환기와 채광을 위해 한두 개의 작은 창을 낸다.

고팡은 큰 구들에 붙어서 배치되어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폐쇄적으로 설치하였고, 모셔진 안칠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면구성의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다.

제주 사람들의 절약 정신인 조냥 정신은 바로 이 고팡에서부터 시작 됐다. 곡물 향아리 옆에는 작은 향아리 하나를 두어 밥을 지을 곡식을 퍼갈 때마다 정량에

45) 이창희,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12, p41

서 한 줍씩 덜어 작은 항아리에 비축해 두었고, 이를 조냥한다고 했던 것이다.
고광 안에 안칠성을 모셔 신이 함께 살고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그림 26. 제주 전통민가의 고광⁴⁶⁾

(6) 퇴(낭간)

상방(마루)과 마당사이에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완충공간으로서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며 상방 기능의 질을 높여주고 비바람과 일광의 여과, 일시적 수납공간에 유용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그림 27. 제주 전통민가의 퇴⁴⁷⁾

(7)풍채

상방 처마에 설치하는 것으로 각목으로 뼈대를 짜고 그 위에 새를 얹어 만든다. 차양기능 및 비바람을 막는 기능을 하며 현대주택에서는 캐노피 역할이라고 할

46)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2007

47)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2007

수 있다.



그림 28. 제주 전통민가의 풍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8) 굴뚝



그림 29. 굴뚝 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그림 30. 굴뚝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 전통민가에서 구들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만든 구멍을 일컫는다. 제주 전통민가는 취사와 난방이 분리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굴뚝은 난방을 위한 시설로 육지의 아궁이 역할을 한다.

3칸형을 기준으로 상방의 한쪽에는 구들과 고팡을 두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지를 두었는데 전후좌우에 전부 뒷간을 두었다. 이 때 측면 되는 구들의 난방을 위한 굴뚝이 되었다. 구들에서는 굴뚝의 상부가 벽장으로 이용되었다

3. 제주전통민가의 재료 특성

3-1. 새

새는 지붕의 대표적인 재료이다. 새를 끈게 펴서 지붕을 두텁게 덮으며, 새줄로 그물처럼 격자형으로 짜서 처마 횡목에 고정시킨다. 이러한 새는 한라산 기슭 오름의 새왓에서 꽃대가 올라가기 전 가을에 베어 놓았다가 겨울에 쓴다⁴⁸⁾

그리고 경량의 식물성재료로 유성분이 많은 저흡수성 성질을 갖고 있어 건조가 빠르다.



그림 31. 새⁴⁹⁾

지붕은 제주 기후 특성 상 물매를 고려 할 때에는 물매잡기를 30도 정도, 이엉매기를 23~30cm 간격으로 시공하는 것이 알맞다.

흙과 더불어 사용하여 단열, 보온 효과가 뛰어난 재료로 사용되었다. 여름에는 통풍이 겨울에는 보온이 잘된다.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를 차단하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 나다.

3-2. 목재

지붕선과 외관의 성격을 결정짓는 부재로 지붕자체의 무게와 풍압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부재인 서까래 등의 목재는 온대상록수림이 주로 쓰이고 있다. 격이 있는 목재로 가시나무 종류가 주로 쓰이며 기건 비중 및 압축, 휨, 전단강도는 소나무의 2배 이상이나, 다만 건조속도는 소나무에 비해 느리다.

그럼에도 나무결이 치밀하고 단단하며, 탄성이 있어서 고정하중과 풍하중을 견디는 구조적 장점이 있다.

48)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2001, p.23
49)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77



그림 32. 목재 서까래 구조⁵⁰⁾

목조건물 역시 단열성능이 우수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수명이 길다.

목재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여 실내의 습도 조절 능력도 뛰어나고, 특유의 향은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

또한 차음성능 및 잔향시간 등 같은 종합적인 음향특성이 우수하여 건축공간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다.⁵¹⁾

3-3. 돌

제주의 돌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으며 구하기가 쉬운 재료중의 하나이다. 제주도 가 지질학적으로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걸쳐 수차례의 용암분출로 인하여 표층이 형성이 되었고, 그때 형성된 화산암과 화산이 폭발하여 형성된 화산쇄설암이 있으며, 용암과 용암 사이에 퇴적층도 나타난다. 남태평양에서 몰아치는 바람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제주도 전역에 지천으로 널려진 돌을 생활 및 건축 재료로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 제주도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제주도의 돌은 주로 돌담의 재료로 쓰여 졌고, 섬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은 것 같은 발담은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며,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 밭과 밭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주 전통민가에서도 특징이 된 돌담 및 돌과 흙으로 쌓은 벽은 그 멋스러움이 제주의 멋으로 대표되어 지고 있다.

50) 제주 초가집의 구조와 특징(<http://blog.naver.com/yang3592>)

51) 이창희,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2012, p24



그림 33. 돌담 및 벽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러한 벽체구조는 외벽은 이중벽으로, 외벽체는 각이 생기지 않도록 원형을 그리도록 쌓고 있다. 반개의 벽체와 후벽은 폐쇄적이면서도 개방적이고,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장막벽으로 이용 되어 졌다. 이것이 돌을 이용해서 제주의 경관적 특성을 살리는 이중벽으로 이용되어 지고 있고, 모서리는 각이 없도록 시공 되어 졌다.

제주 전통민가는 대부분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담은 풍속의 영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울레에는 정주석을 만들어 정낭을 끼어 놓고 대문을 대신하였으며, 정지의 아궁이와 초석과 기단, 그리고 물허벅을 놓는 물팡도 돌을 이용하여 만들어 졌다.

늘굽도 잡석을 쌓아 만들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농기구, 생활도구등도 돌이 널리 쓰였다.

3-4. 흙

흙의 응집력과 점착력은 건축구조재료로서 강도와 관계되며, 외력에 대한 변형 강도를 나타내는 가소성은 기상변화에 따른 흙의 복원력과 관계가 있다.

흙의 특성 중 통기성은 수분조절 능력과 열조절 능력이 뛰어나 온열환경 조절에 탁월하다.

흙벽을 사용할 경우 흙에 짙이 섞인 비율에 따라 열전도율이 변화가 된다.

또한, 흙의 투습성은 흙 입자크기, 공극의 형상과 배열, 공극비 및 포화도 등에 의해 변화 한다.

제주 전통민가의 벽은 흙, 돌, 짚을 다 같이 사용하여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림 34. 제주 초가 흙벽⁵²⁾

52)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
론, 2010, p44

IV. 제주 전통민가 특성의 현대적 요소 도출

1. 배치특성의 현대적 적용 요소 도출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 특성을 계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의 흐름을 쫓아 갈 수 있는가이다. 옛사람들이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담아내는 것이기에 충분히 적용 발전 시켜 나가면 현대주택에서의 적용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주택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폐쇄적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 특성이 마당의 구심적 배치, 별동형 배치, 대지 모양에 따른 특성에 맞는 배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배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현대주택에 맞는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배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가족형태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생활 모습을 고려한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제주 전통민가에는 구조적 기술이 부족하여 적용이 안되었던 것을 현대주택에는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배치 형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1. 마당의 구심적 배치

제주 전통민가에서는 고려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현대 주택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발생 하였다. 그것은 주거 공간 이외의 비주거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차량이용으로 인한 주차장, 개인 활동이 발생하면서 작업실 및 창고 등과 같은 비주거 공간이 요구 되어진다.

기본적인 주거 공간에 비주거 공간을 배치하는 경우 마주앉은 두거리 형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면 마당 특성을 살려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돌담(올레), 기타 부속 시설 등을 함께 활용 가능 할 것이다.

1-2. 별동형 배치

바람 등 기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한 배치 형태이다. 또한, 바람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 개별화 할 수 있으나, 일조권의 불리함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대주택에는 바람은 구조적 설계로 극복하고, 일조권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현대주택 적용 방안으로는 주거공간인 안거리, 밖거리의 배치 방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배치 형태는 외거리 또는 모로 앞은 두거리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것이다.

1-3. 가족 제도에 따른 배치

제주 전통민가에서는 한세대 이상이 거주 가능한 배치인 별동형 배치 형태를 볼 수 있지만, 현재는 한 울타리 안에서 분가가 아닌 독립된 주택으로의 분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 형태 또한 벗어나면서 완전히 지역적으로 분리 독립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에서는 안거리, 밖거리 형태로 한울타리 안에 두 살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혼인과 동시에 부모와 분가하여 독립된 생활공간을 분할 하면서 취사와 경제활동 역시 엄격한 분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53)

하지만 지금은 한울타리 분가가 아닌 완전한 분가 형태이므로 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혼전후로 완전한 분가 전에 분가 가능한 자녀들이 거주 할 수 있는 배치 형태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 갈 수 있다.

1-4. 공간 배치의 연결

제주 전통민가에서는 안거리, 밖거리의 연결은 독립된 공간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 건축에서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여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연결방법에 따라 복도 및 공간이 형성 되고 건물 배치에 또 다른 디자인적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마당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간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복도로서 역할을 하거나, 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료 선택에서 기존 배치된 건물과 다르게 하여 부각되게 하는 것도 방법

53) 김혜숙,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제주대, 1991, p391

이다.

2. 공간특성의 현대적 적용 요소 도출

2-1. 외부적 공간요소

위에서 기술한 배치형태를 어느 정도 결정하였다면 그다음으로 외부 공간요소들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전통민가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요소는 올레, 마당, 우영, 안뒤, 풍채 정도가 될 것이다.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을 살려 현대주택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위 요소들의 적절한 조합을 이루어 내면서 전통적인 형태를 찾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용의 시작은 해당 주택 부지의 진출입로를 분석하여 제주 전통민가 요소인 올레를 적용 출입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지 않고자 폐쇄적 배치 형태를 갖고는 하지만, 안에서는 열린 공간감이 부여가 되어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배치형태에 공간적 특성을 부여하여 개방감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좁은 공간이어도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좁은 공간을 통하여 채광과 시각적 개방감 등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레의 입구를 어귀라 하는데 어귀는 올레의 양쪽에 놓여진다. 그 앞에는 디딤돌로 사용 되는 몰광돌이 놓이는데, 이것은 주택 입구의 시작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정원의 모습에서 나타내어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마당에서는 배치 형태에 따른 공간 구성을 통해 현대 주택에 전통민가 마당의 형태를 적용 하는 방법으로 중정의 모습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 형태를 가져가기에는 대지의 모습이나 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정의 모습을 통해 배치 형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영의 요소는 여분의 터를 활용한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거주자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두는 것으로 사용자의 사상을 표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안뒤는 마지막 공간으로 뒤쪽으로 처해져 있고, 대외 출입구가 없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은 거주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구성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2. 내부적 공간요소

제주 전통민가에서 내부적 공간요소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요소는 상방(마루), 구들, 정지, 췌방, 고팡, 퇴, 굴묵 정도가 될 것이다.

상방과 구들의 형태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주 전통민가의 정지 모습은 지금의 현대주택에서는 찾기 어려운 모습이어서 전통을 승계하며 계승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며, 췌방과 고팡과의 연관성도 고려하여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정지의 위생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구분되어지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퇴는 상방과 마당사이의 완충공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으며, 외부에 개방된 형태이다. 이것은 현대주택에서 테라스, 발코니 등의 모습으로 햇빛과 외부풍경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굴묵은 현대식 난방으로 찾아 볼 수 없겠으나, 보조적 형태로 설치 될 수 있는 황토방, 난로 등의 형태를 찾아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2-3. 공간특성의 고려요소

제주 전통민가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바람에 저항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열적 완충공간을 만들어 주고, 안뒤와 통하는 문은 크기를 최소화 하였고, 문의 양옆에 장방을 설치하여 외벽이 바로 외부로 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현대 건축에 적용하는 것은 방, 거실, 부엌이 직접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복도나 뒷마루등을 설치하거나, 보조공간을 외벽에 면하게 하여 위치시키는 형태를 취하면 될 것이다.

또한 겹집형태의 구조를 취하여 냉난방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형태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2-4. 기타 요소

(1) 어긋돌



그림 35. 어긋돌⁵⁴⁾

입구 양옆에 세우는 돌을 말하며, 현대주택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모습이다.

(2) 정낭과 정주목



그림 36. 정낭과 정주목⁵⁵⁾

54)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20

55)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86

제주 전통민가에서 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대 주택에서는 조경을 할 때 제주스러움을 표현 하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3) 담



그림 37. 담⁵⁶⁾

제주의 돌담은 전통민가 뿐만 아니라 밭담, 울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제주 경관을 살리도록 돌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돌담과 더불어 방풍림을 식재하여 훌륭한 방풍시설로 현대 주택에서 활용 가능하다.

(4) 풍채

제주 전통민가에서는 각목으로 뼈대를 짜고 그 위에 새를 엮어 만든 것으로 상방 처마에 설치하여 차양 기능 및 비바람을 막는 기능을 하였다. 현대 주택에서는 재료를 달리하여 캐노피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 주택에서는 같은 기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기능적인면 이외에 디자인적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56)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76

(5) 지붕

제주 전통민가의 지붕은 깊은 처마로 편평한 지붕면의 음양의 조화를 형상화 하는 효과적인 외관을 형성 한다. 현대 주택에서의 지붕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지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 전통민가의 지붕을 형상화 하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6) 개구부

제주 전통민가의 창문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작게 만들었듯이 개방성을 지향하면서도 옆벽면과 후벽면은 최소한의 개구부만 두는 것이다. 즉, 개구부 위치에 따른 공기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 전통민가 중 일부는 재창문이라는 판문이 설치되어 안방에 달린 봉창문처럼 풍우설시에도 채광과 배연 및 통풍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바람의 영향 및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구성을 하여야 한다.

이렇듯 개구부는 실내창, 양면채광, 건물의 단부, 해받이 장소, 외랑, 발코니, 대지에의 연결 등 계절변화에 따라 반영되는 가변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7) 기단

통풍 및 풍해를 고려한 구성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현대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기단의 높이는 제주 전통민가의 높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높거나 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한다.

3. 재료특성의 현대적 적용 요소 도출

제주 전통민가의 전통적인 재료는 새, 목재, 돌 등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현대주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대 주택에 적용 가능한 재료는 상당히 다양하므로 배치 및 형태,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시공되어야 할 것이다.

(1) 새

현대주택에서 새의 활용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활용가능한 방안을 찾아본다면 제주도 들판의 역새가 자라나는 경관을 표현한 마당 또는 중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과 같이 정원안에 새를 재배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한 모습이 좋은 예로 소개 할 수 있다.



그림 38. 새를 활용한 마당 모습

(2) 목재

제주 전통민가에서는 온대상록수림의 가시나무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주택에서는 다양한 목재가 사용되고 있다.

목재는 가공과 시공성이 용이하고 보수가 쉽다. 또한 목재의 향과 부드러운 질감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쾌적함이 표현된다.

구조적으로도 건조 정도에 따라 인장, 압축강도가 크며, 습도조절과 단열 성능이 우수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도 크다.

순수 목조주택의 형태로도 건축이 되어 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 내부재료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여기에 목재는 흙과 더불어 자연 형태 그대로 색이나 느낌을 가져가면서 공기정화, 채광의 조절 기능 등도 갖고 있다.

(3) 흙과 돌

제주 전통민가에서 사용되어진 돌과 흙은 현대주택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편이

다. 현재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돌이다. 흙과 돌을 섞어 투박하고 거친 느낌을 표현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흙은 시공 후 개보수가 쉬워 많이 활용되었고, 원적외선 방사효과 및 내부온도의 일교차가 적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성도 갖추고 있다.

또한 흙은 함수율이 높아 습도조절 능력 및 공기 순환효과도 있어 좋은 건축재료가 되었다.

돌은 운반 및 시공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열과 화재에 강하고 충격에 강하다. 흙벽에 더불어 시공하여 외벽을 보호하고, 변형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강해 중요 구성부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구하기 쉽고 시공시 자연스러운 제주스러운 아름다움이 엿 보이는 재료이다.

(4) 창호 재료

전통민가에는 목재와 창호지를 이용한 개구부 구조물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이중창호 형태로 PVC 또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만들어 지고 있다.

이렇게 전통민가와 현대 주택 사이에는 재료의 사용면에서도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달라지고 있다.

4. 현대적 적용 사례와 적용 가능성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제주 전통민가의 현대적 적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대건축의 다가성 개념을 다시금 제주 전통민가로 투영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것을 통해 제주 전통민가의 현대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4-1. 포도호텔

이타미 준은 ‘포도호텔’에서 제주 전통민가가 지니는 지붕 이미지와 공간흐름을 차용하는 개념을 갖고, 자연풍경을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공간구성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⁵⁷⁾

포도호텔은 제주의 지리적, 기후적 및 물리적 요인과 지역의 무속신앙과, 가족 제도 등 생활문화적 요인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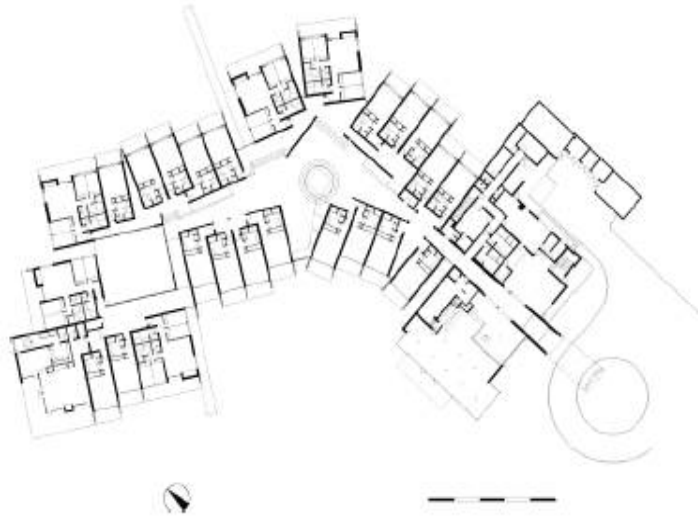


그림 39. 포도호텔의 평면배치도⁵⁸⁾

(1) 배치의 적용 분석

우선 평면배치는 제주 전통민가의 두거리집, 세거리집을 중정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배치하였다. 또한 마당을 중심으로 별동형 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폐쇄적 형태를 갖고 있다.

이것은 건물의 평면배치에서 제주 전통민가의 특징을 살리면서 건물 자체가 제주의 지역성을 갖고 있고, 현대주택에 적용 가능한 결합모형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2) 공간구조의 적용 분석

1). 외부적 요소

가. 올레 : 그림에서 보듯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올레를 형상화 해서 만들어졌고, 주출입구를 포함해 3개의 올레를 적용하여 외부로의 통로를 만들어

57)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57

58)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80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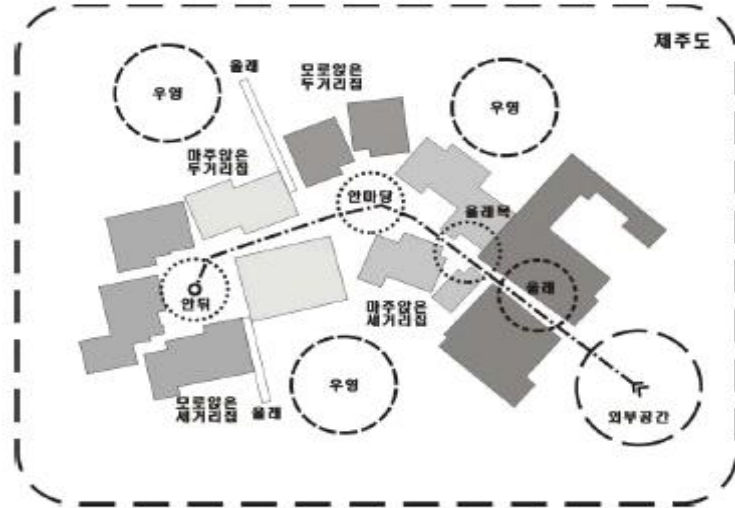


그림 40.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를 적용한 배치개념⁵⁹⁾

나. 마당 : 포도호텔에서의 가장 돋보이는 장소로 실외에 있는 마당과, 제주 전통민가에서 보여지는 안마당이 있다.

제주 전통민가의 안마당을 형상화 하기 위해 호텔 중심홀에 열린 원형정원을 만들고, 유리벽을 통해 자연의 빛기둥을 표현하였다.



그림 41. 포도호텔 내부 유리중정(안마당)⁶⁰⁾

다. 안뒤 : 제주 전통민가에서는 제일 뒷 공간으로 출입구가 없으며, 상방 또는 정지의 뒷문으로 출입하기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다. 포도호텔에서는 이 공간을 표현하면서 명상과 휴식의 공간으로 대지의 높이차를 이용 몇 개의 계단과 경사로를 만들어 놓았다.

59)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80

60)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82



그림 42. 포도호텔 안뒀61)

라. 우영 : 제주 전통민가에서는 여분의 공간을 활용해 채소밭 등으로 활용하던 곳인데, 포도호텔에서는 유채와 보리를 각각 계절에 맞춰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62)



그림 43. 포도호텔 우영63)

61)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83

62)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83

63)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83

2) 내부적 요소

되는 제주 전통민가에서 상방과 마당사이의 완충공간으로 사용 되었다. 때론 일광을 즐기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었다.

객실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직접 제주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게 하였으며, 입면효과로 생동한 그림자를 연출할 수 있었다.

3) 가구적 요소

제주 전통민가에서 가구적 요소는 기단, 석벽, 벽체, 풍채 등이며, 이 중 포도호텔에서 활용한 것은 풍채이다. 각목 뼈대 위에 새를 얹어서 만들고, 비바람을 막거나, 햇빛이 내리 쬐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포도호텔에서는 전통재료 대신에 금속으로 뼈대를 만들고, 건물의 입면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외부경관적 요소

외부경관적 요소에는 담, 지붕, 개구부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지붕이다. 제주 전통민가는 우진각 지붕 형태로 다소 경사가 얇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비보다 바람을 더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초가 지붕이며, 새를 엮은 후 새를 꼬은 줄로 엮어 매어 형성 하였다.

포도호텔의 지붕이 이런 제주 전통민가의 지붕 형태를 따라 적용하였다. 대신 전통적 재료인 새 대신에 티타늄아연판을 사용하였고, 지붕을 하나의 곡면으로 이어 형성하면서 제주의 특징인 오름의 형태를 형상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⁴⁾

5) 재료적 요소

제주에서 가장 전통적인 건축재료는 돌과 역새일 것이다. 그래서 제주 전통민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포도호텔에서도 로비는 제주석으로 마감하였고, 돌을 낮게 쌓아 우영의 요소를 표현하였다.

새의 경우는 직접적 사용보다는 실내정원의 조경요소로 사용하였다.

64)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p57

4-2. 지니어스 로사이

‘인간과 자연, 공간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훌륭한 건축이라고 말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건축을 추구하는 안도 다다오의 ‘휘닉스 아일랜드 리조트’는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을 지닌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명상공간이 있다.⁶⁵⁾

표 9.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⁶⁶⁾

요소	이미지	내용
배 치		건물을 연결 짓는 ‘돌의 정원’은 전통가옥의 마을에서 주거의 내부까지의 연계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다.
조 형		돌담과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 장형의 벽은 원경으로 보았을 때, 주변 환경의 수평선과 지평선과 위배되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공 간		돌의 정원에서는 가옥과 가옥을 연결짓는 울레와 유사한 구성으로 명상의 기능을 하고, 경로 중간에 의도적인 풍경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기대하지 않은 장면을 맞이하는 울레와 유사한 경관 유도방식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재 료		노출 콘크리트와 지역의 석재인 현무암의 사용으로 건축가의 특색과 지역성을 융화, 외부조경에 현무암 형태 그대로를 배치하였다.

65) 정은형, 제주 전통건축 공간과 조형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p85

66) 정은형, 제주 전통건축 공간과 조형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2013

실내외 공간에서 각기 다른 체험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지붕이 열려 있는 좁은 복도를 통해 하늘을 바라 볼 수 있는 명상의 공간이다.

자연 속에서 휴식과 정신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공간이다. 입구의 차단벽과 연못을 통과해 주변을 덮고 있는 현무암 사이길을 걸어 가며 감상한다. 타원형의 꽃밭에서 붉은 색의 빛을, 사각형의 역새 받에서 바람과 만난다.

본 건물 좌우에서 쏟아지는 폭포 사이를 지나며 에릭오어의 작품을 연상할 수 있다. 가로로 열려 있는 건물의 개구부를 통해 노랑 유채밭과 성산일출봉을 감상한다.

지니어스 로사이의 건물 간 이동 경로는 ‘돌의 정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이는 다음 공간의 위계와 이전 경로와 공간 구성의 리듬을 형성한다. 이러한 배치와 동선은 전통가옥의 진입경로와 유사하다. 지하의 명상실로 진입하는 경로 또한 올레에서 가옥으로 진입하는 방향성과 같이 한다. 경로 중간에 풍경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기대하지 않은 장면을 맞이하는 올레와 유사한 경관 유도방식을 사용하였다.⁶⁷⁾

4-3. 씨에스 호텔



그림 44. 씨에스 호텔 전경

제주 전통민가의 형태를 재현하면서 구성된 씨에스 호텔은 올레길을 형성하면서 배치가 된 외거리 형태를 나타낸다.

제주 전통민가의 지붕을 그대로 복원하면서 공간구성은 외거리형태이고 중앙에 마당(광장)이 있다.⁶⁸⁾

67) 정은형, 제주 전통건축 공간과 조형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p85

(1) 조형의 디자인 요소

제주 전통민가의 형태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한 형태를 하고 있다. 올레길 따라 늘어선 외거리 배치 형태이다. 유선형의 지붕에 덧벽을 하고 있고, 현무암의 벽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공간구성 요소

3칸집 구조를 하고 있으면서 크기를 확대한 형태로 만들어 졌다. 그리고 동선은 S자형 올레길로 만들어져서 진입하게 되어 있다.⁶⁹⁾

(3) 재료적 요소

제주 전통민가의 원재료인 새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붕을 만들었고, 벽체는 현무암 원석을 사용하여 복원하였다.

이처럼 씨에스 호텔은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현대적인 재해석은 형태적인 면보다는 공간 구성면이나 스케일 감을 더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4. 성읍1리 노인복지회관



그림 45. 성읍1리 노인복지회관 정면부



그림 46. 노인복지회관 연결부

제주도에서 현재 가장 전통적인 요소들을 잘 갖추어 제주 전통민가 형식을 취해 지어지고 활용되고 있는 곳은 성읍민속마을이다.

68) 임민희, 제주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명대학교, 석론, 2011, p41

69) 임민희, 제주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명대학교, 석론, 2011, p41

이중에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고 현대주택이지만 전통적인 요소들을 간직한 형태로 건축한 공공건물이 성읍1리 노인복지회관이다.⁷⁰⁾

(1) 공간배치 형태

전통민가의 모로 앉은 두거리집 형태로 별동형 배치를 따랐다. 그리고 연결부에는 건물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추후 증축된 공간이 있어 기능적으로 사용자의 편리함을 추구한 현대주택에 적용하는 부분이 생겨났다.

(2) 조형적 요소

지붕은 초가지붕의 형태로 곡선을 살려 표현되었다. 여기에 석벽은 건물의 모든 입면에 일정한 높이까지 균일하게 쌓아 제주 전통민가의 내피와 외피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3) 재료

지붕에 전통적 재료인 화산석 송이를 사용하여 제주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돌을 이용하여 외벽을 둘러 쌓아 특성을 살렸다.

4-5. 조천읍 신촌리 일반주택

현대주택이 실제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 지어진 형태이다.



그림 47. 조천읍 신촌리 일반주택 외관 그림 48. 조천읍 신촌리 일반주택 마당

70)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11

(1) 공간배치 형태

전통민가의 서로 마주 보는 가로자형 배치 형태를 따랐다. 안팎거리 개념을 적용한 형태이며 분가에 의한 별동형 배치가 그대로 적용된 형태이다.

기본 3칸형 평면 구성을 하고 있으며, 마당 구심적 배치 형태를 갖고 있다.⁷¹⁾

(2) 조형적 요소

외관은 두 건물과 돌담으로 구성된 마당이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마당 구심적 배치로 인해 마당을 향한 개구부들이 주로 위치하고 건물 후면부에 위치한 개구부를 최소화 하였다.

지붕은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을 반영한 볼트지붕 형태로 시공되었다.

(3) 재료

지붕에 전통적 재료인 돌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입면에 자유곡선을 살린 제주석을 판붙임 하였다. 울레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제주 돌담 형식의 담을 쌓아 올리기도 하였다.

4-6. 제주의 근,현대 주택 요소 사례 분석



그림 49. 근대 제주 주택의 모습⁷²⁾

71)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10, p11

72) 이정준, 기후조건에 적합한 제주 민가건축의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론, 2015, p29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 또는 박공지붕의 형태를 띄고 있다. 외벽의 특성은 돌(현무암)과 송이를 사용하여 지역성을 나타내려 노력하였다. 거기에 내풍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마감재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PVC 계열의 재료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창호의 형태는 면적과 배치가 늘어나면서 습기와 틈새 바람을 방지하고자 이중창호로 구성되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내외부 창호의 바닥높이에 차이를 두거나 창대석을 돌출시켜 풍우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마당을 구심적으로 본동 배치의 형태를 하고 있다. 여기에 상방이나 마루를 중심으로 3칸형, 4칸형이 주를 이루며 장방형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근대에는 방풍과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울레가 축소되고 마당 면적이 줄어들면서 건물로의 진입경로가 짧고 단순하게 구성되기 시작했다.

환기와 통풍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개구부 면적이 더욱 크게 확대되고 실별 개별 통풍이 가능하도록 창호가 배치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류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시공이 되면서 환기나 통풍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50. 정지공간의 변화 모습⁷³⁾

4-7. 현대주택으로의 적용 가능 요소

(1) 배치 공간계획 요소

동선 영역, 건물의 정면, 주현관, 건물의 통풍, 건물의채광, 중정마당

73) 이정준, 기후조건에 적합한 제주 민가건축의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론, 2015, p51

(2) 배치 기본 계획 개념

건물의 배치는 단독 건물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건물로 분리하여 배치한다. 그래서 집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바람을 최소화하고 외부공간에서의 작업도 용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요감을 형성한다.

외부의 중심공간을 마당중심으로 구심적 배치를 한다. 복사면에서는 동향, 서향 배치가 유리하다.⁷⁴⁾

(3) 공간구성 계획 요소

실내채광, 내부통로, 공동영역(대청, 마루), 방, 기타침실, 수장공간, 동측취침

(4) 공간구성 기본 계획 개념

진입할 때 건물정면이 보이지 않도록 계획하며, 공간마당 안뒤로 이어지는 공간의 구성을 활용 한다. 그리고 바람이 구들로 직접 침입하는 것을 지양하되, 여름에는 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하므로 폐쇄적 형태가 아닌 개방적, 반개방적 형태를 형성하도록 한다.

(5) 지붕의 계획

지붕을 계획 할 때 편평한 지붕면과 깊은 처마의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효과적인 외관을 형성한다.

(6) 벽체의 계획

벽은 폐쇄적이거나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맞추어 풍우의 영향을 대응 할 수 있도록 제주의 기후적 특성에 맞게 계획 되어야 한다.

또한 장막벽을 구성하여 비바람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어야 하며, 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이중적벽의 제주 특유의 경관적 특성을 표현한다. 특히 모서리 부분 등은 각이 지지 않도록 한다.⁷⁵⁾

74)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0, p55

(7) 개구부의 계획

개구부는 기후적, 생활문화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되도록 가변적 요소를 계획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배치에 따른 개구부 위치를 적절히 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속도를 늦출수 있도록 한다.

(8) 담(올레)의 계획

담의 설치에 대한 계획 역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돌(현무암)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살릴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외관상으로 견고한 벽보다는 틈새를 이용하는 벽의 디자인 형태가 필요하다.

방풍시설로는 주로 돌담과 방풍림을 이용한다. 이런 방풍림은 돌담과 인접해서 조성하며 적당한 밀도로 식재 한다.

75)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0, p55

V. 결론

지금의 제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건축물 들이 넘쳐 나고 있다. 우후죽순 들어서면 제주의 건축물들을 보고 있으면 어느 것이 제주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고민 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을 맞게 된다.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갈구하는 제주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찾아 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진정한 제주스러움이 무엇일까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제주의 현대주택이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래전부터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기에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현대주택에 적용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찾은 요소들을 새로움과 기존환경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결합을 하는 형태로 현대주택에 적용을 하면 지역적인 적용은 가능할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한계성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의를 내려서 현대건축에 제주의 옛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 제주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제주 전통민가의 고유한 특성 요소를 반영한 현대주택을 만드는 방법 및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가는데 있다.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을 오늘날의 현대주택에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배치에서 제주 전통민가는 공용부와 사적부의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울레 목을 통해 마당을 진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완전개방이나 완전 폐쇄가 아닌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제주는 기후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는게 필요하다. 그 중 단연 바람의 영향을 무시하여 넘길 수 없기에 건축물을 배치할 때부터 고려 하여야 한다.

다만 현대주택은 기술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에 방향을 고려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二자형 배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밖거리의 방향이 불리하므로, 마당 구심적 형태에서 차고, 창고, 작업실 등의 부속건물을 二자형태로 이용하여 마당을 구성해 준다.

(2) 평면공간 구성은 요소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려한다.

상방은 제주 전통민가는 개인적인면 보다는 가족형태의 공간구성으로 다른방들 보다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

올레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모습을 표현하기에 꼭 필요한 요소중 하나로써 공간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둘 다 표현하기에 좋은 특성인 것이다.

마당은 배치 형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제주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좋고 현대주택의 모습을 표현하기에도 좋은 요소이다.

우영은 현대주택에서 일반주택 형태인 경우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의 우영 형태가 계속 나올거라 보여진다.

안뒤 요소는 실재 존재할 수도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면 좋을 것이다.

풍채는 현대주택의 캐노피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다만 실용성을 갖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멋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상방, 구들은 각각 기존 용도인 거실과 방으로 적용하여 건축물에 맞는 모습으로 표현 될 것이다. 부엌을 정지라는 옛 형태로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는 일정한 형태로라도 형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팡, 굴묵, 첻방, 퇴, 풍채 등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현대주택에 적용하도록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문화 등이 변화되면서 필요공간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고팡, 굴묵, 첻방, 퇴, 풍채를 단독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중심공간인 상방과 구들, 정지와 함께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 재료로서 새와 돌은 아직도 제주에서는 훌륭한 건축 재료로 인식하고 쓰여지고 있다. 다만 새는 전통초가집인 지붕의 재료로서 또는 정원의 일부로서만 쓰여지고 있고, 돌은 고가의 재료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할때에만 쓰여지는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포도호텔 중정에서의 역새로 표현한 예와 씨에스호텔에서 초가지붕을 그대로 살린 객실건물 등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반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이다.

또한 돌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주스러움을 표현하는 것도 그 대지의 주변 환경과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 나와야 할 것이다.

(4) 제주에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외피재료가 바람과 습기에 대항하기 위해 조

금씩 다르게 발전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습기가 문제가 되는 지역은 벽체를 보완해 가며 기단, 석재 또는 타일 마감, 물받이 홈통 설치, 노출 현무암 석벽등이 나타나고 있다.

해안가보다는 중산간으로 갈수록 바람보다 습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나타나고 있으며, 일사나 통풍을 통한 습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⁷⁶⁾

바람의 영향이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붕을 중심으로 재료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현대로 오면서 강재 절판지붕, 일체화된 강재 용마름 구성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제주 전통민가의 전통적 요소를 계승 발전 시키려는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만의 전통과 지역성을 현대주택에 반영하려는 접점에서 그 갈등은 깊어만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 주택 건축 특징의 하나인 물부엌은 바깥쪽으로 배치하고, 화장실은 안쪽에 배치하여 효과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듯 현대주택을 건축할 때 제주 전통민가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이 단편적인 이해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적인 면에 따라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구조 및 배치의 다양한 방향에서 재해석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생활문화를 고려한 제주 전통민가의 지역성 등이 드러나는 것이며, 창의적 접근방법을 더욱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재해석을 통해 발전적인 제주의 지역적 모델이 만들어 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현대주택에 반영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전통민가는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하면서 자유스러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공간이었다. 그러면서 가족간의 상호협력과 조화를 지향하는 형태이다.

또한 권위적인 수직적, 서열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공간구조는 제주 전통민가 만의 특성으로 앞으로 제주의 현대 주택이 가져가야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본 연구는 제주 전통민가의 위상과 역할을 재고하고, 이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함으로써 현대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들을 밝혀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제주 전통민가의 요소들이 반영된 제주스러운 현대건축물들이 나올 것이다.

76) 이정준, 기후조건에 적합한 제주 민가건축의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론, 2015, p70

■ 참고 문헌

1. 강영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국내석사, 2000
2. 김미령, 濟州島의 氣候環境이 民家形成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국내석사, 1998
3. 김영식,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국내석사, 1996
4. 김영철, 관광지화에 따른 읍성취락 공간구조의 변화 : 제주도 성읍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2000
5. 김영직, 제주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국내석사, 1996
6. 김지연,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지역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국내석사, 2014
7. 김창현, 도시단독주택의 주거평면형태와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1960~80년대 서울, 대구, 제주지역의 도시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2003
8. 김형남, 1920-1960년대 濟州市 都市住宅의 類型 및 變遷에 關한 研究, 明知大學校, 국내석사, 1999
9.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국내석사, 1999
10. 선은수, 전통민가를 통해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생태적 특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국내석사, 2005
11. 손성아, 제주도 전통민가를 통해 본 섬유작품 연구 : 색채 및 조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2002
12. 이정준, 기후조건에 적합한 제주 민가건축의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2015
13. 이창희,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국내석사, 2012
14. 임민희, 제주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명대학교, 국내석사, 2011
15. 장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2011
16. 정은형, 제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유희공간의 리노베이션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2014

17. 홍광택, 제주지역 현대건축의 배치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국내석사, 2010
18. 한동오, 윤인석,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 : 비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내석사, 2007
19. 김행신 : 김혜숙,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논문집, Vol.33 No.1, 1991
20. 김형준, 제주초가에 나타나는 다가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1
21. 김형준, 제주전통주택에 나타나는 다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12
22. 김형준, 제주초가에 나타나는 다가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1
23. 김형준, 문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
24. 박은영 : 박언곤, 제주도 민가의 공간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 화북 · 조천의 민가를 대상으로 ,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19 n.2, 1999-10
25. 선은수 : 박철민, 전통민가를 통해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생태적 특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첨단기술연구소논문집, Vol.16 No.2, 2005
26. 양상호 : 박순관, 제주의 지역주의 건축 : 1950년대 이후의 흐름과 표현양상에 대한 비평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지, v.18 n.6, 2009.12
27. 양상호, 근대시기 제주의 도시와 건축,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집, 2011.11
28. 양택훈, 제주도 민가의 주생활특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5 n.4, 1989-08
29. 양택훈 ; 박용환, 제주민가의 주거환경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I)/ 오조 마을의 주거공간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7 n.5, 1991-10
30. 양택훈 ; 박용환, 제주민가의 주거환경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II) : 오조 마을의 주생활변화를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 Vol.7 No.6, 1991
31. 양택훈,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따른 민가의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1
32. 양택훈 : 박용환,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5) : 도시주거의 주생활 특성을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 Vol.9 No.9, 1993
33. 이정준 ; 이용규 ; 전규엽, 기후적 특성에 대응한 제주 민가의 시대별 건축특징,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2013 n.01, 2013-12
34. 이정준 ; 전규엽, 제주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른 민가의 건축 및 외피재료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생활환경학회지, v.21 n.1, 2014.02

35. 이창희 : 박정근, 제주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건축학회 논문집 : v.16 n.2, 2014-05
36. 이희봉 : 송병언, 민가 유형의 문화적 해석 : 제주도의 부엌 구조와 생활과의 대응을 바탕으로, 環境科學研究, Vol.10, 1999
37. 이희봉 : 송병언, 제주도 민가유형 해석을 통한 문화지역 설정,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9-09
38. 정영철, 이해성, 제주도 전통민가 형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 / 남방적 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7 n.3, 1991-06
39. 정은형, 제주 전통건축 공간과 조형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